

2023. 11. 16.(목)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6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푸른도시국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	이용남	300-5505
문화비축기지관리 사무소장	김호석	376-8731
문화기획팀장	백인호	376-8732
관련 누리집 (프로그램안내)	https://blog.naver.com/culturetank/223227867176	

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10쪽

문화비축기지, 융복합 예술 플랫폼 'OTC∞2023' 첫 선보여

- 'OTC∞2023:예술+자연'의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선보이는 융복합 프로젝트 진행
- 11.25.(토)~12.31.(일)까지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주제로 전시, 공연, 포럼 등
- 120개국 6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구름감상협회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콘텐츠
- 구름을 관찰하는〈날마다 구름 한 점〉, 구름을 맛보는〈날마다 구름 한 입〉 등 체험도 가능
-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필요

서울시 문화비축기지는 11월 25일(토)부터 12월 31일(일)까지 예술과 자연의 융복합 예술 프로젝트인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롭게 기획된 문화비축기지 융복합 예술 플랫폼 'OTC∞2023'에서 첫선을 보이는 행사이다.

○ 융복합 예술 플랫폼 'OTC∞2023'은 문화비축기지(Oil Tank Culture)와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의 조합으로 융합과 복합의 작용을 통해 다양한 예술 콘텐츠가 끝없이 생성되는 플랫폼을 뜻한다. 문화비축기지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예술+자연〉, 〈예술+건축〉, 〈예술+산업〉 세 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이번 프로젝트는 120개국 6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구름감상협회(Cloud Appreciation Society)’의 아카이브와 구름을 주제로 한 전시, 공연, 포럼, 체험활동 등을 선보인다. 참여자들은 문화비축기지에서 넓은 하늘과 한 번도 반복되지 않는 구름을 감상하며 예술을 느끼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또한, 장민승 작가와 정재일 음악감독의 전시프로젝트 〈밝은 방〉, 크리에이티브 콜렉티브 Opal Studio의 〈몽계몽개〉와 〈구름배자〉, 그리고 구름에 대한 아카이브 전시 〈구름 아카이브:PATTERN〉 등 3개의 전시와 재즈 피아니스트 고희안의 〈Silver Lining〉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 〈밝은 방〉은 T4 공간을 비우고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여 탱크 특유의 공명과 음향적 잔향으로 이루어진 순수 감상을 전달한다.
 - 일정 : 11.25.(토) ~ 12.31.(일) / T4 복합문화공간
 - 〈몽계몽개〉, 〈구름배자〉는 구름의 형태와 구름의 명칭이 주는 의미를 공간 설치와 패브릭 작업으로 소개한다.
 - 일정 : 11.25.(토) ~ 12.31.(일) / T6 옥상마루
 - 〈구름 아카이브:PATTERN〉은 흡사 구름과 같은 투명 돔에서 구름에 관한 아카이브 전시를 즐길 수 있다. 구름의 유형, 형태, 하위 범주 등을 시각화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름감상협회 회원들이 축적한 세계 각지의 구름 사진 자료도 감상할 수 있다.
 - 일정 : 11.25.(토) ~ 12.31.(일) / T4 앞 야외공간
 - 〈Silver Lining〉은 재즈 밴드와 솔로 피아노로 구성된 공연을 통해 유리 파빌리온에서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며 구름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
 - 일정 및 인원: 11.25.(토) 13:00~15:00 / 40명 / 사전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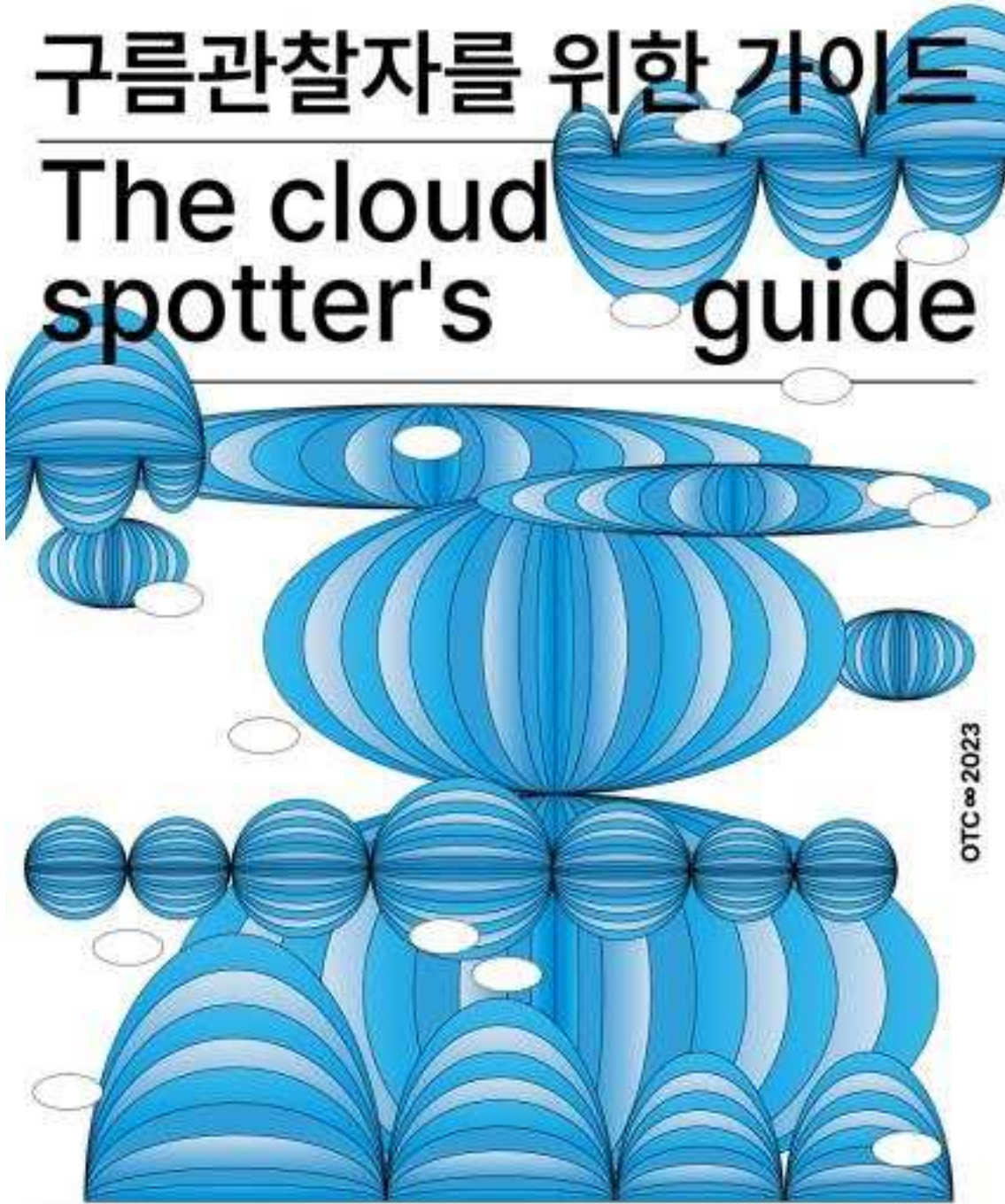
- 프로젝트의 모티브가 된 ‘구름감상협회’의 개빈 프레터피니(Gavin Pretor-Pinney)의 온라인 포럼도 총 2회 진행되며, 구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시각과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까지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 포럼 <구름관찰자 : THE CLOUDSPOTTER>는 11.25.(토) 16:00 / 12.16.(토) 16:00, 2회에 걸쳐 진행한다. ※ 1회당 30명(사전예약)
- 참여 프로그램인 <날마다 구름 한 점>에서는 특별히 제작한 관찰 도구를 사용하여 문화비축기지 곳곳에서 구름 감상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날마다 구름 한 입>에서는 흰 구름과 먹구름 맛 솜사탕을 통해 시각 외의 다른 감각으로 구름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도 마련되어 있다.
 - <날마다 구름 한 점> : 11.25.(토)~ 구름 관찰도구 선착순 배포(400개)
 - <날마다 구름 한 입> : 11.25.(토) 13:00~15:00 / 70명 / 사전예약
12.16.(토) 13:00~15:00 / 70명 / 사전예약
- 행사 관련 프로그램 일정이나 사전 예약은 문화비축기지 블로그(<https://blog.naver.com/culturetank>)나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 또는 문의전화(02-376-841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부공원여가센터 이용남 소장은 “특정 공간과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융합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문화비축기지 융복합 예술 플랫폼’을 운영하고자 한다.”며 “구름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하늘의 구름과 함께, 삶을 긍정하고 즐기는 활동을 하면서 예술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붙임 1. 홍보물(포스터)

2.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개요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The cloud spotter's guide



OTC ©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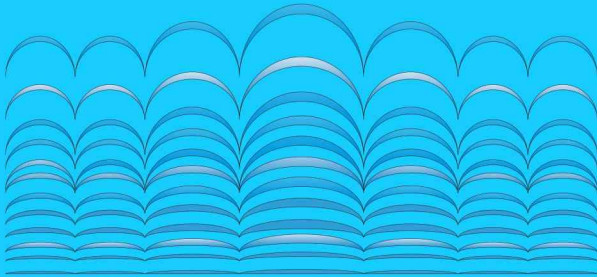
2023. 11. 25. - 12. 31.

문화비축기지 Oil Tank Culture

서울특별시 문화비축기지

구름관찰자: THE CLOUDSPOTTER

개빈 프레터-피니(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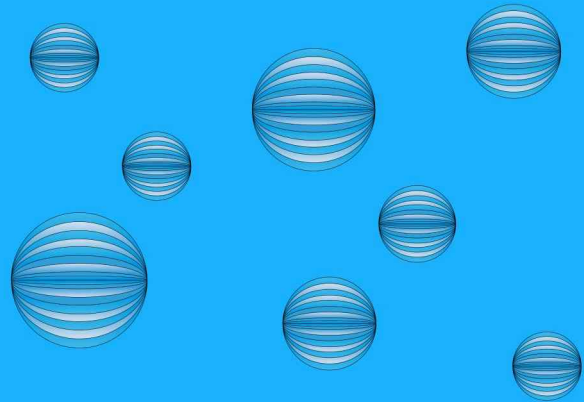
포럼

2023. 11. 25.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사전예약

OTC∞2023

날마다 구름 한 입



참여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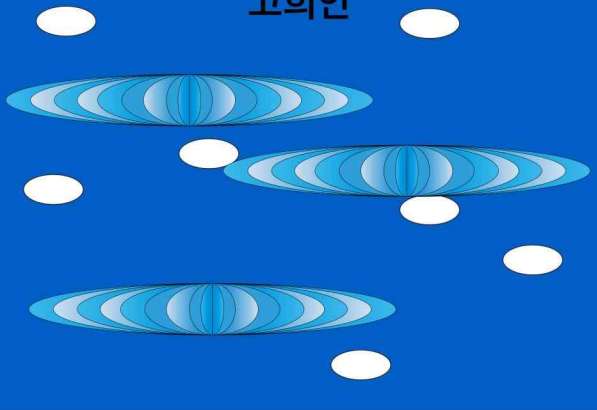
2023. 11. 25.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사전예약

OTC∞2023

Sliver lining

고희안



공연

2023. 11. 26.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사전예약

OTC∞2023

붙임2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프로그램 개요

문화비축기지

융복합 예술 플랫폼 「OTC∞ 2023」

예술 + 자연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1. 프로젝트 개요

- 1) 명칭: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 2) 일정: 2023.11.25.(토)~12.31.(일) 10:00~18:00
- 3) 장소: T1, T4, T6, 문화비축기지 곳곳
- 4) 주최 및 주관: 문화비축기지
- 5) 협력: 구름감상협회(Cloud Appreciation Society)

2. 프로젝트 구성

구분		명칭	참여	일정	공간	관람방법
전시	작품	<밝은 방>	장민승+정재일	11.25.(토)~12.31.(일) 10:00~18:00	T4	누구나 무료관람
		<몽게몽개>, <구름배자>	Opal Studio		T6	
	아카이브	<구름 아카이브: PATTERN>	유나킴씨		T4 앞	
공연		<Silver lining>	고희안	11.26.(일) 13:00~15:00	T1	사전예약
포럼		<구름관찰자: THE CLOUDSPOTTER>	개빈 프레터-피니	11.25.(토) 16:00 / 12.16.(토) 16:00	T1, T6	사전예약 (1회당 30명)
참여 프로그램	<날마다 구름 한 점>		-	11.25.(토)~12.31.(일)	ALL	관찰도구 선착순 증정 (400명)
	<날마다 구름 한 입>		-	11.25.(토) 13:00~15:00/ 12.16.(토) 13:00~15:00	T1, T6	사전예약 (1회당 70명)

3. 프로그램 내용

전시1 <밝은 방> / T4
<p>본 작품은 본래 국립현대미술관의 제작 지원으로 2016년 서울관에서 개최되었던 기획 전시에 출품했던 <밝은 방 light chamber>의 소리와 음악을 T4의 공간 음향에 맞게 재배치 한 것이다. 당시 우리는 미술관에서 가장 깊숙한 곳이자 층고가 가장 높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전시실 6의 어둠과 설명하기 어려운 공명과 음향적 잔향에 매료되었다. (그 장소 역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군사 시설이었다.) 우리는 두 달 동안 아무것도 없는 전시실 6의 텅 빈 곳에서 음악을 듣고 또 공간 음향을 고려한 음악을 만들며 때로는 무심히 앉아 있기도 했다.</p> <p>작품들이 철수되고 깨끗이 비워졌을 때 감상의 대상이 부재함으로써 온전히 공간 자체를 집중해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텅 빈 상태가 그 자체로 미적이고 순수해서 아름다웠다. 그 후로 이와 같은 어떤 유사한 공간감도 경험할 수가 없었는데 텅 빈 문화비축기지 탱크 4에서 장맛비가 철재 지</p>

붕을 세차게 내리치면서 만들었던 음향적 경험은 모방할 수 없는 것이겠다. 그 어떤 웅장한 악기도 채우지 못하던 공간을 무수한 빔방울들이 철판을 울리는 소리는 어마어마한 잔향을 피워 마치 거대한 스틸드럼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순수 감상(deep listening)을 가능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기름증기의 배출이나 유량을 점검하기 위해 뚫려있는 작은 원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은 구름의 이동과 날씨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것이 되었는데 순수하게 빛을 잘 볼 수 있는 경험도 특별한 순간이 되었다. 그곳은 고요하고 어두운 거대한 공명통(enclosure 또는 chamber)이 되었다. 이에 따라 보는 감각보다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나 사소한 공기 같은 소리도 섬세하게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비축유가 저장되어 있었던 시설의 내부가 역설적으로 아주 특별한 장소감과 음향감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느껴졌으며 우리는 또 한 번 빛과 소리로 거대한 빈 탱크를 채워 보고자 하였다.

**장민승
작가**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장민승은 가구 제작자이자 사진가로, 20여 편의 상업영화 음악 프로듀서와 라이브연출자로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다. 그 경험을 기반으로 경계 없는 협업을 통해 감각과 경험의 확장을 현대미술로서 실험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영상설치 보이스리스(2014) 황석영 작가의 등단작 ‘입석부근’을 근간으로 설악산 토왕성 폭포의 빙벽을 배경으로 제작한 영화 입석부근(2015), 천일의 제작 기간 동안 제주 한라산을 담은 영화 오버테어(2018)가 있으며 근작으로는 2020년 광주민주화항쟁 40주년 헌정작 둥글고 둥글게 를 연출했다.

**정재일
음악감독**

정재일은 제 92회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에 빛나는 영화 기생충 (2019)과 제 94회 에미상 수상작 OTT 시리즈 오징어 게임 (2021)의 음악감독이자 샤넬 넥스트 프라이즈(2021)의 주인공으로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넘나드는 음악가이다. 국악인 한승석과 함께한 국악 크로스오버 앨범 «바리abandoned»로 2015년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음반상을 수상하는 등 폭넓은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의 유서 깊은 클래식 레이블인 DECCA에서 앨범을 발매하는 등 한국을 넘어 전세계로 활동을 넓혀나가고 있다.



전시2 <몽개몽개>, <구름배자> / T6 옥상마루

<몽개몽개>는 구름이 피어오르는 시각적 의태어와 ‘몽개다’라는 의미를 조합한 설치물이다. 패브릭을 활용한 구조적 설치 작업으로 구름을 관찰하는 행위를 유도하고, 참여자들이 시간과 장소·프로젝트에 대해 공통의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몽글몽글한 구름 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몽개’ 앉아 하늘에 떠 있는 구름들을 관찰함으로써 구름의 시각적, 촉각적 요소를 느낄 수 있는 매개물이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름의 움직임처럼 사람들의 참여로 설치물의 형태가 변화되도록 구성하였다.

공간 설치에 이어 문화비축기지의 현장 지킴이 복장으로 Opal Studio의 의복 작업<구름배자>를 소개한다. 한복의 배자에서 실루엣을 차용하였으며 땅, 하늘, 그리고 구름을 표현한 천연 염색의 누비 원단으로 완성된 지킴이의 조끼는 프로젝트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구름을 연상시키는 복선 역할을 한다.

Opal Studio

패션과 그래픽 등 디자이너들과 스타일리스트, 디제이로 이루어진 크리에이티브 콜렉티브이다. 서울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패션 중심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결과물을 공유한다. 2023년 1월에는 싱어송라이터 이찬혁과 그의 크루와 함께 사무람 라운지에서 패션 퍼포먼스 <사람쇼>를 선보였고, 같은 주제로 제작한 비디오 아트, 패션 스타일링, 포토그래피, 플레이리스트와 믹스셋을 발표하였다.



전시3 <구름 아카이브: PATTERN> / T4 앞 투명돔

구름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확연한 특징이 있다.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왜 그렇게 보이는지, 어떻게 한 상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며 또 어떻게 쇠퇴하고 흩어지는지, 그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구름을 감상한다면 단순한 기상학 원리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에서는 2023, 2024에 걸쳐 아카이브와 포럼을 통해 구름이 보여주는 별나고 즐거운 특성들을 면밀하게 살펴본다. <구름 아카이브: PATTERN>는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처럼 ‘린네식 분류법’에 따라 높이와 모습으로 정리한 구름 분류 체계에 시각화 작업을 더했다. 적운, 층운, 권운 등 ‘속(屬, Genus)’의 열 가지 주요 유형에 따라 구름의 다양한 형태를 분류하고, ‘종(種, Species)’과 ‘변종(變種, Variety)’에 속하는 하위 범주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구름 관찰과 더불어 서로 다른 구름 유형의 이름을 배우는 것은 하늘과 새롭게 관계를 맺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구름감상협회의 회원들이 축적해 온 구름 사진 자료도 함께 소개한다.

구름
감상
협회

구름과 하늘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로 2005년에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며 2023년 현재 120개국에서 6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구름의 다양한 형태와 움직임, 색상, 빛의 변화 등에 대한 관찰을 공유하고 구름을 통해 예술과 과학,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와 협력을 도모한다. 하늘 관찰과 구름 감상 활동으로 자

	<p>연의 아름다움과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일상에 감사하는 삶의 방식을 공유한다.</p>
<p>공연 <Silver lining> / T1</p>	
<p>사람들은 항상 'Silver lining'을 찾아다닌다. 저 멀리 얼핏 보이는 그 반짝이는 무언가는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만든다. 구름은 부지불식간에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오고 떠난다. 구름 뒤로 찬란한 햇살이 빛나고 있다는 희망은 구름이 오기 전에는 느끼지 못한다. 구름은 지나가는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오래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다. 하늘과 구름이 보이는 문화비축기지 T1의 아름다운 공간에서 솔로 피아노로 구성된 <silver lining> 공연을 통해 구름에 대한 마음을 공유한다.</p>	
<p>고희안</p>	<p>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편곡가인 고희안은 버클리 음악대학과 뉴욕 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2002/2003 Piano Department Chair Award, 2013 Readers' Poll 올해의 피아노 부문 등을 수상하였다. 재즈밴드의 리더로서 꾸준히 활동하며 '프렐류드(Prelude)'는 7장의 정규 앨범을 통해 국내 재즈 씬에서 주요하게 자리매김하였고, '고희안 트리오'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트리오 중 하나로 음악적 역량을 활발하게 펼쳐가고 있다.</p>
<p>포럼 <구름관찰자: THE CLOUDSPOTTER> / T1, T6 강의실</p>	
<p>구름감상협회의 창립자이자 미국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강연 플랫폼 테드(TED)'에서 130만 뷰를 기록한 개빈 프레터-피니가 하늘의 그림 여행으로 초대한다. 화창한 날씨의 숨통치 적운부터 비행선 모양의 렌즈구름과 일시적인 파동인 물결구름까지, 장관을 이루는 구름의 다양한 형태를 인식하는 방법을 공유한다. 구름 식별이 날씨 예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물의 단순한 특성이 어떻게 구름을 그토록 생동감 넘치고 감상적이며 신비롭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구름 감상이 디지털 세계의 압력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p>	
<p>개빈 프레터 -피니</p>	<p>'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추종자들에 맞서는 구름 덕후. '푸른하늘주의'의 진부함을 퇴치하기 위해 구름감상협회를 설립하여 회장을 맡고 있다. 구름에 빠져 지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일에 매료되어 이른바 '덕업일치'의 삶을 살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를 졸업한 뒤, 센트럴 세인트마틴스 스쿨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했다. 레딩대학교 기상학과 방문연구원을 지냈고, 왕립기상학회의 마이클 헌트상을 받았다. '구름수집가의 핸드북The Cloud Collector's Guide', '날마다 구름 한 점A Cloud A Day'을 썼고, '파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The Wavewatcher's Companion'로 2011년 권위 있는 왕립학회 과학도서상을 수상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고상한 기술을 옹호하는 잡지 '아이들러The Idler'를 공동 창간했으며, 구름을 주제로 한 그의 TEDGlobal 강연은 130만 뷰를 넘겼다. 바닷가에서건 하늘에서건 축구장에서건,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구름과 파도를 지켜보는 것을 사랑한다.</p>

참여 프로그램1 <날마다 구름 한 점> / 문화비축기지 곳곳

하늘과 구름은 그야말로 시시각각 다르고, 어디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보고 있는 구름! <날마다 구름 한 점>에서는 《구름관찰자를 위한 가이드》를 위해 제작한 관찰 도구로 문화비축기지 곳곳에서 자유롭게 구름을 감상해 본다.
같은 장소에서 각각 다르게 관찰한 구름을 살펴보며 우리가 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음을 느껴보고,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가 없는 기록을 남긴다.
또한 구름 외에도 <날마다 구름 한 점>을 위해 그래픽, 제품 디자이너 혹은 예술가들의 관찰 도구 작업을 시리즈로 선보이며 관찰, 도구, 작업, 놀이 등의 키워드를 축적한다.

참여 프로그램2 <날마다 구름 한 입> / T1, T6 옥상마루

아무런 걱정도, 목적도 없이, 그저 삶을 긍정하며 즐기는 취미 활동으로서 구름 관찰을 정의하고 시각 외 다른 감각으로 구름을 경험해 본다. 그 첫 번째로 <날마다 구름 한 입>에서는 구름의 형태와 촉감에 대한 상상을 형상화하여 구름에 대한 미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흰 구름 맛, 먹구름 맛 솜사탕은 뭉게구름이라고도 불리며 여러 가지 구름 중 가장 친숙한 적운을 모티브로 한다.

